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7년 4월 2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26.(수)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4. 25.(화)	담당부서	전자전기과
담당과장	김종주 과장(044-203-4340)	담 당 자	민문기 서기관(044-203-4346)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신시장 창출을 위해
가전사, 통신사 등 이업종 기업 한자리에 모여
- 민관합동,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 전품연 「IoT가전 빅데이터 센터」 개소하여 신제품 개발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4. 26.(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전자부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 이날 발족식에는 **가전사**(삼성전자, 엘지(LG)전자, 쿠쳰), **통신사**(에스케이(SK), 케이티(KT)), **반도체・센서・소프트웨어(SW)업체**(엠디에스(MDS) 테크놀로지, 삼영 에스엔씨(S&C), 와이즈넛), **건설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서비스사**(인코어드, 에스원) 등 스마트 홈 관련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참석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 : 4.26(수) 10:00~11:30 / **장소** : 전자부품연구원 대회의실(분당)
□ **참석자** : 정부, 업계, 유관기관 대표
○ (업계) 가전, 통신, 반도체 및 센서, 소프트웨어(SW), 건설 및 서비스사 대표 등
○ (유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스마트 홈 산업협회 등

□ 이번 융합 얼라이언스는 사물인터넷(IoT) 가전이 통신과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업종 기업간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업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

Indus

○ 융합 얼라이언스는 ① 스마트 홈 구현기술 협력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분야**, ②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분야**, ③ 규제, 표준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 분야**, ④ 스마트 홈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확산 분야** 등 **4개 분야**로 운영한다.

○ 우선, 오늘 모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며,

- 점차 **유통, 의료, 보험 등 연관서비스 기업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 타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융합 얼라이언스 활동계획>

단계	참여기관	주요 활동내용
1단계 (시장 기반 마련)	가전, 통신, 반도체, 센서, SW, 건설, 서비스	•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 및 연계 협력 • 전력 데이터 등 공공정보 활용 협력 • 스마트 홈 비즈니스 모델 개발
2단계 (서비스 확대)	유통, 의료, 보험 등 연관 서비스업체로 확대	•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 서비스기업과의 협력범위 확대 • 스마트 홈 아파트 확산 및 고도화
3단계 (융합, 글로벌화)	병원, 자동차 등 타 업종 및 글로벌 기업 참여	• 글로벌시장 공동 진출 • 스마트 시티/스마트 헬스케어/스마트 카 등 他 플랫폼과 연계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발언(발언 전문 별첨)

□ 주형환 장관은 "**스마트 홈은 가정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가전이 통신으로 연결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말하고,

○ "인터넷 포털,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타 플랫폼과 달리 아직 주도적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일류의 가전 산업과 우수한 정보기술(IT) 및 통신 인프라, 반도체 등 업스트림 산업의 역량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분야이다.**"라고 평가했다.

□ 이런 측면에서 참여 기업이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선, 가전사와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홈 **플랫폼 간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세계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 건설부문이 스마트 홈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도 **조력자로서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해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 첫째,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고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력 빅데이터 센터 등 **공공분야가 선도해서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폭을 확대**

○ 둘째, 스마트 홈 **초기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사물인터넷(IoT) 가전 사용가구수**를 작년 250세대에서 **올해 500세대로 확대**하고, **구형 가전(legacy)과 사물인터넷(IoT)가전 연동을 위한 통합 솔류션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

○ 셋째, **개방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업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20여개 공과대학**에서 사물인터넷**(IoT) 프로그램이 교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가전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전자 사물인터넷(IoT) 협업센터(15.9 구축)」 참여기업수 : ('16년) 100개→ ('17년) 300개

참석 기업 주요 발언

□ 참여한 업계대표들은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해 가전,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 간 개방형 협력이 필요**한데 반해, 그간 이러한 **협업의 장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Indus

○ 이번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을 계기로 **플랫폼간 연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등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글로벌 공동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짐했다.

□ 또한, 참석한 주요 기업은 사물인터넷(IoT)가전 및 스마트 홈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인공지능 빅스비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삼성커넥트'를 탑재할 예정

○ 엘지(**LG)전자**는 독자 개발한 딥러닝 기술 '딥씽큐'를 탑재한 사물인터넷(IoT) 가전을 출시할 예정

○ 이날, 기업사례를 발표한 **쿠첸**은 기존 무선랜(wifi) 밥솥 이외에 전기레인지, 후드 등을 연계한 '스마트 쿠킹' 솔루션을 개발중이라고 밝힘

○ **에스케이(SK) 텔레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누구)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하고, 케이티(**KT)**는 기가지니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기가지니 소프트웨어 개발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부품연구원 「IoT가전 빅데이터 센터」 개소

□ 또한, 이날 사물인터넷(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에 맞춰 전자부품연구원 **「IoT가전 빅데이터 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 「IoT가전 빅데이터 센터」는 가전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적으로 가공·분석하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기능 가전 및 스마트 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은 한국전력과** 전력사용량 등에 관한 **빅데이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전의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민문기 서기관(☎ 044-203-4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융합 얼라이언스 행사 개요

□ **개최 배경**

○ **IoT가전 및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의 장 마련

○ 특히, 전자부품연구원**「IoT가전 빅데이터 센터」현판식**과 연계 개최 함으로써 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인 가전 데이터 관련 애로 해결 지원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4.26(수) 10:00~11:30** / 전자부품연구원(분당 소재)

○ 참석자 : 총 18명

- (정부) 산업부 장관, 시스템산업정책관
- (업계) 가전, 통신, 반도체 및 센서, SW, 건설 및 서비스사
- (유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

구 분	업 체 명
가전사(4)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첸
통신사(2)	SK텔레콤, KT
반도체/센서, SW사(3)	MDS테크널리지, 삼영S&C, 와이즈넛
건설/서비스사(4)	LH공사, SH공사,인코어드(에너지), 에스원(보안)
유관기관(4)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전자진흥회, 스마트 홈 산업협회

□ **진행순서**

주요 내용	비 고
IoT가전 빅데이터 센터 현판식	참석자 전원
전품연 / 한전 빅데이터 협력 MOU 체결	전품연 및 한전 산업부 장관
인사 말씀	산업부 장관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발표	전자진흥회
기업 사례 발표	SK텔레콤 / 쿠첸
토 론	참석자 전원

Indus

참고 2 참석자 명단

구분	기업명	참석자	
		성명	직위
가전사 (4)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
	LG전자	송대현	사장
	코웨이	이해선	대표이사
	쿠첸	이대희	대표이사
통신사 (2)	SK텔레콤	이호수	사장
	KT	김형욱	IoT 총괄실장
반도체/센서 SW(빅데이터) (3)	MDS 테크놀로지	장명섭	대표이사
	삼영S&C	박상익	대표이사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이사
건설/서비스사 (4)	LH 공사	송태호	부사장
	SH 공사	변창흠	사장
	인코어드	최종웅	사장
	에스원	육현표	사장
유관기관 (3)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원장
	한국전력	김시호	부사장
	전자산업진흥회	남인석	부회장
	스마트홈 산업협회	최상만	본부장

참고 3 융합얼라이언스 운영계획

□ (**구성**) 가전사, 통신사, 반도체 및 센서, SW, 서비스, 건설사, 전품연 등

□ (**운영**) 기술협력, BM개발, 제도개선, 보급확산 등 4개 분야를 운영

* 분과별 미팅은 매월,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총회는 반기별로 개최



□ (**활동계획**) **1단계**로 플랫폼간 연계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로 참여자간 공동 비즈니스 실행 →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 등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로 확대

단계	참여기관	주요 활동내용
1단계 (시장 기반 마련)	가전, 통신, 반도체, 센서, SW, 건설, 서비스	·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 및 연계 협력 · 전력 데이터 등 공공정보 활용 협력 · 스마트 홈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 (서비스 확대)	보험, 유통, 의료 등 연관 서비스업체로 확대	·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 서비스기업과의 협력범위 확대 · 스마트 홈 아파트 확산 및 고도화
↓		
3단계 (융합, 글로벌화)	병원, 자동차 등 타 업종 및 글로벌 기업 참여	· 글로벌시장 공동 진출 · 스마트 시티/스마트 헬스케어/스마트 카 등 他 플랫폼과 연계

Indus

참고 4 장관님 인사말씀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우리나라의 IoT가전 및 스마트 홈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적인 가전사 및 통신사, 반도체 및 센서기업,
SW 및 빅데이터 기업, 서비스사와 건설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스마트 홈과 우리의 경쟁력

스마트 홈은 **가정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와 센서를 탑재한 IoT가전이 통신으로 연결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입니다.

올해 초(17.1월)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AT Kearney가 예측했듯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5년 150억불에서 2030년 4,000억불로
급속하게 성장할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 기업은 물론
구글 같은 IT 기업이 스마트 홈에 적극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은 주도적인 사업자(platformer)가 없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포탈시장은 구글이, SNS는 페이스 북이
e커머스는 아마존이, 엔터테인먼트는 애플이 선점했다면,

스마트 홈은 다양한 가전업체와 IT업체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과 역량을 잘 결합한다면,
스마트 홈 분야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일류의 가전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및 통신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5세대(5G) 이동통신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스트림 산업의 역량도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는 스마트 홈과 같이 첨단 IT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얼리 어답터형 소비자도 많습니다.

3 스마트 홈 융합얼라이언스 의의와 역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융합 얼라이언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스마트 홈은 특정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선, 가전사와 통신사가 각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플랫폼간 상호 연동성이 부족한데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사실상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매력있는 가치를 제공하여
신규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도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ndus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확산된다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LH공사가 공릉지구 100세대,
SH공사가 오금지구 1,400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홈 아파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이 **스마트 홈 보급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족한 융합 얼라이언스는
1단계로, 오늘 모인 기업 들간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며,

점차 유통, 의료, 보험 등 연관서비스 기업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 타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정부의 지원방향

정부도 조력자로서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IoT 가전 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및 초기시장 창출, 집중 지원 등의
세부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와 연결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고 활용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자부품연구원 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가 개소하고
한국전력의 전력 빅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분야가 선도해서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폭을 넓히고 상업적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기시장 창출도 가속화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기준에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IoT 절전기능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는 IoT 가전 사용가구를 작년 250세대에서 올해는 500세대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IoT가전 구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구형가전(Legacy)과 IoT 가전이 연동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모듈도 개발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스마트 홈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IoT 기술컨설팅, 대·중소기업 IoT 협업 프로젝트 등
중소기업의 IoT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ndus

IoT가전 및 스마트 홈에 특화된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20여개 공과대학과 올해 2학기부터
IoT 관련 프로그램이 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공과대학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앞선 제조 응용기술과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 원천기술과의
개방형 기술협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페이스 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혁신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른 어느 기업들보다 우리 기업들이
IoT가전 및 스마트 홈 선점을 위해
한발 앞서 움직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하는 시도는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견고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함께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